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 사무엘상 10장 1-9절

Tag: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 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벤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 여쭙었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사사정치 보다는 왕정이 낫다. 왕정보다는 입헌군주제가, 그보다는 민주주의가 낫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왕정과 비슷함.) (민주주의 보다는 + 하나님의 나라가 낫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낫고, 율법 보다는 복음이 낫고, 구교 보다는 신교가 낫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개신교 보다 더 나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셨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

마침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작정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 나섰다.

그가 사무엘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내일 이맘때 쯤 베냐민 땅에서 온 청년을 네게로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고 하셨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민족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보는 눈을 말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셨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리라, 잃은 나귀는 걱정하지 말라 다 찾았다.

-온 이스라엘의 찾는 자가 바로 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다. 그는 당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무엘은 사울을 잔치의 상석에 앉히고 그와 더불어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사무엘과 사울은 다음 날 동틀 때 일찍 일어나 사울을 아버지의 집으로 보냈다. 마을 끝에 이르러서는 사환을 앞서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만 남아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사무엘은 먼저 예언적 사건들을 예견해 주었다.

-1. 너는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이야기 해 줄 것이다.

-2. 더 가다가 다블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벨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고 갈 것이다. 한 사람은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덩이를 줄 것이다.

-3. 그 후에 네가 블레셋 사람의 진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네가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현악) 소고와(타악) 저와(피리) 수금(기타)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첫번째 사건은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확인의 말씀이다.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암나귀들은 찾았다고 함.)

-두번째 사건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도록 주신 예언적 사건이다.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주는 사건이다.

-세번째 사건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터인데, 사울에게 주신 방법은 그를 예언자의 무리 속에 넣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의 복음은 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 부어지는게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나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큰 그릇도 될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될 수 있다.

세상이 변해도, 체제가 바뀌어도, 문명과 문화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하면서 복음을 지켜낸다.

성령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좋다.

이제 새 시대가 되기도 했거니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며 꼭 종교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만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새 시대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교육과 가정과 일터와 문화와 문명과 예술과 과학과 의술에 이르기

까지 각자의 영역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모든 영역에서 사울처럼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지도자가 될 소명을 감당하라.

나로서 부족하거든,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이삭처럼 지경을 넓히고, 야곱처럼 자녀를 이방에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거든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고 사울처럼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 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 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 낫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게 될 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 새 생각을 넣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축원드린다.

아멘.

(말뚝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